

# 교사는 왜 여가의 수호자인가?

권영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육학과

## 국문초록

이 글의 목적은 고대적 여가 개념의 인식론적 의미를 밝히고 여가와 참된 삶의 관련을 탐구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과학 혁명 이후 현대인들에게는 삶조차도 노동의 일부로 간주하는 경향이 팽배하지만 고대인들은 참된 삶이 자신들의 노력만으로 얻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로 그 참된 삶을 위한 시간, 자신들의 노력의 한계 또는 여백을 채워주는 시간이 바로 여가였다. 고대인들은 여가를 통해서 인간 노력의 한계를 인식하였으며, 겸손한 태도를 지니게 되었다.

여가(은혜)와 노동의 관계의 측면에서 교회, 학교, 공장을 비교할 때 성직자나 노동 감독관에 비해 교사는 매우 곤란한 처지에 있는데, 이는 어느 한 활동이 다른 활동을 압도하는 것이 별 문제 사태가 아닌 교회 또는 공장에 비해 학교는, 노동이 여가를 압도하게 되면 그 사회적 기능을 잃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학교(school)와 그 어원인 여가(schole) 사이의 관련이 점점 퇴색되어 가는 현대교육에 있어서 고대적인 여가의 의미에 대한 탐구는 학교의 본래적인 기능에 대한 성찰을 가능하게 해 줄 것이며, 더 나아가 여가의 수호자로서의 교사의 의미를 환기해 줄 것이다.

■ 주제어 ■ 노동, 은혜, 교사, 수호자, 참된 삶

\* ymkwon99@knou.ac.kr

## I 서론

“여가 시간에는 뭐 하세요?”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대답은 무엇인가? 아마도 당신의 머리 속에는 등산, 운동, 넷플릭스 시청, 맛집 탐방, 쇼핑 등등의 답들이 떠오를 것이다. 물론 다른 성격의 답이 떠오를 수도 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떤 현대인도 이 질문 자체가 어색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여가란,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일이 없어 남는 시간’<sup>1)</sup>이다. 따라서 ‘여가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는 질문은, ‘당신은 일하지 않는 시간에는 무엇을 하느냐?’는 질문으로 바뀌어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조셉 피이퍼(Josef Pieper, 1952/2005)의 설명에 따르면, 고대인들은 이 질문 자체를 이해할 수 없거나 매우 기괴한 것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들에게 있어서 여가란, 따로 시간을 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의 활동이 아니었으며 또한 무엇을 ‘하는’ 시간은 더더욱 아니었다. 현대인들이 여가를 정의함에 있어 일 개념에 의존하는 바와 같이(일을 하지 않는 시간), 고대인들은 반대로 일을 정의함에 있어 여가 개념에 의존하였다. 일을 의미하는 고대 그리스어는 ‘ascholia’였는데 이는 여가를 의미하는 ‘schole’로부터 파생된 단어이다. 다시 말해서,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있어서 일이란 곧 여가의 부재였다.

---

1) 네이버 국어사전

이는 여가가 일의 부재를 의미하는 현대인들의 방식과는 완전히 반대라고 할 수 있다. 아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고대인들은 여가 중심의 삶을 살았고 현대인들은 일 중심의 삶을 살고 있다고.

도대체 여가란 고대인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지녔기에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될 수 있었던 것인가? 그리고 그러한 삶의 태도가 일에 매몰된 상태로 나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삶에 어떠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 이 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피이퍼가 제시하는 고대적 여가의 첫 번째 특징은 ‘여가는 침묵의 한 형태’라는 것이다(Pieper, 1952/2005, 36쪽). 침묵이 입을 닫는다는 물리적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때 침묵의 반대는 입을 엮, 즉 말을 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따라서 여가가 침묵의 형태를 띤다는 것은 여가를 통해서 우리는 입을 열어 우리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입을 닫고 듣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듣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을 가져다주는지는 지식의 획득 경로에 관한 고대인들의 두 가지 구분, 즉 라티오(ratio)와 인텔렉투스(intellectus)의 구분을 참고할 수 있다.<sup>2)</sup> 라티오는 “추론적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힘, 탐색하고 검사하는 힘, 추상하고 정의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힘”을 의미한다(Pieper, 1952/2005, 12쪽). 그리고 인텔렉투스란 “단순 직관의 능력이라

2) 'ratio'와 'intellectus'는 현대 영어 'rational'과 'intellectual'의 어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둘은 각각 '합리적인'과 '지적인'으로 번역되는데, '어떤 사람이 합리적이다'라고 할 때는 어떠한 의사 결정에 있어서 그 사람의 근거 또는 계산이 이치에 맞음을 의미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이 지적이다'라고 할 때에는 물론 최근에는 약간의 왜곡된 의미로 지식의 풍부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그 본래적 의미는 그 사람의 지식, 화법, 관계의 기술, 또는 전반적인 분위기에서 풍겨 나오는 요인들을 근거로 판단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현대 영어 단어 'rational(합리적인)'와 'intellectual(지적인)' 역시 그 어원과 마찬가지로 시각화 된 또는 논리적, 추론적인 측면과 비시각화 된, 추상적인 측면의 구분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는 의미에서의 특별한 이해를 가리켜서 부르는 이름”으로서 마치 “풍경이 눈에 들어오듯이 진리가 저절로 단순하고 순수한 시각에 들어오는 상태”를 가리킨다(Pieper, 1952/2005, 12쪽).

라티오와 인텔렉투스를 지식의 두 가지 획득 경로라고 위에 설명하였지만, 더 적절한 표현은 우리의 앎을 구성하는 두 가지 원천이라는 것이다. 위에 설명되어 있듯이 라티오는 능동적인, 우리의 노력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앎을 의미한다. 침묵과 연결하여 설명한다면, 라티오는 우리가 수동적으로 입을 닫고 기다리는 활동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의 입을 열고 힘을 쏟는 활동이다. 반면에 인텔렉투스는 우리의 노력 여하와는 무관한, 활동이라고도 부르기 적절하지 않은 활동을 가리킨다. 우리는 입을 닫고 겸손히 진리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대하며 기다려야 한다.

중세인들은 라티오로서의 이해가 인간의 지식을 완결할 수는 없으며, 추론적 또는 논리적 사고 능력으로서의 라티오와 더불어 인간은 인텔렉투스라는 다른 종류의 이해능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믿었다.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완전한 앎에 도달할 수 없다는 고대인들의 태도는 그들의 존재론적 태도에도 영향을 끼치는데 그것이 바로 삶의 완성 추구로서의 여가이다. 현대인들이야 여가의 반대어가 일이라는 것에 익숙하고 일이라는 개념을 활용하지 않고서는 여가를 정의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지만,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가의 반대어는 다른 어떤 활동이 아닌 비여가였다.

고대인들이 여가 중심의 삶을 살았다고 해서 전적으로 여가만 추구하였던 것은 아니다. 그들 역시 진지하게 비여가 활동

에 적극적으로 임하였고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항상 자신들의 노력만으로 ‘완성’에 도달할 수는 없다는 겸손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아테네의 성인으로 추앙받는 소크라테스의 삶을 돌아볼 때 그는 확실한 앎을 얻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였다. 다시 말해서 적극적으로 라티오를 활용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그를 성인의 반열에 올려 놓았던 요소는 그러한 적극적인 라티오의 사용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모른다는 것에 대한 인식, 즉 앎에 대한 겸손한 태도였던 것이다. 즉 고대인들은 앎과 삶의 영역에 있어 능동적이고 진취적으로 살더라도 그 완성은 자신들의 손에 달려 있지 않음을 기억하며 삶을 영위하였다.

하지만 삶과 앎에 대한 이러한 겸손한 태도는 과학혁명을 맞이하며 희미해지기 시작하였다. 김안중(1994)은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칸트(I. Kant)가 철학하는 일을 가리켜 ‘헤라클레스의 勞動’(Herculean Labour)이라고 부른 이래로, 사람들은 ‘知識은 힘’이라든가 ‘知識도 곧 勞動이다’ - 소위 ‘知識勞動’ - 는 ‘현대적’ 지식관을 무의식중에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지식관은 사람들이 지식과 여가의 관련을 파악하는 방식 속에도 반영되어 있다(49쪽).”

다시 말해서, 현대에 접어들면서 인간의 앎에 있어서 ‘노력’이 차지하는 기세가 매우 거세다. 이러한 영향은 인간의 ‘앎’을 그 주된 과업으로 삼는 학교에까지 침투하여

서 학생들이 지식을 획득함에 있어 ‘은혜’의 측면은 간과되고 있는 것이다. 과연 이러한 상황은 문제의 소지가 없는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의 역할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다루도록 하겠다.

이어지는 II 장을 통해서 는 교회, 학교, 공장이라는 인간 사회에 존재하는 기관들의 성격을 여가와 노동이라는 기준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서 교회의 성직자, 공장의 노동감독관과는 다른 학교의 교사가 처한 곤란한 상황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III 장을 통해서 는 여가의 태도, 즉 삶의 완성에 있어서 인간의 겸손한 태도의 사례와 그것의 교육적 의미를 살펴볼 것이며, IV 장에서는 고대적 의미의 여가가 지닌 존재론적 의미와 인식론적 의미를 살펴보고 학생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교사의 존재론적 사명과 인식론적 사명을 논하도록 하겠다.

## II 교회 vs 학교 vs 공장

이번 장을 통해서 는 조금 생뚱맞은 비교일 수는 있겠지만, 고대적 의미의 여가의 측면에서 교회와 학교와 공장을 비교해보겠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고대인들은 인간의 정신활동을 두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첫째는 인간의 노력의 측면을 나타내는 라티오이며, 둘째는 은혜의 측면을 나타내는 인텔렉투스이다. 물론 정신활동의 두 가지 종류를 인간의 일반적인 활동으로 간주하는 것에는 논리적 비약이 따를 수 있겠으나, 노력과 은혜라는 측면에서 세 가지 기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우선 교회는 은혜의 장(場)이라고 할 수 있다. 일요일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지은 죄를 회개하고 입을 닫고 침잠, 묵상하며 신을 향해 마음과 귀를 열게 된다. 특히 개신교에 있어서 구원의 문제는 전적으로 신에게 달려 있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으로 달성되는 보상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를 통해 구원의 핵심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고린도전서 15:2).”

또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서 2:8-9).”

이처럼 교회야말로 인간의 노력의 가치가 가장 평가절하되는, 상대적으로 은혜 또는 여가로 가득찬 장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sup>3)</sup> 따라서 교회에서 어떤 성직자가 여가를 수호하기 위

---

3) 아무리 기독교의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노력의 가치가 평가절하 된다 하더라도, 성경 구절 여러 곳에서 인간 삶에 있어서 행위의 중요성 역시 강조되고 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산을 옮길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것도 아니요”라고 말하고 있으며, 야고보는 “공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공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야고보서 2:13)”라고 쓰고 있다. 하지만 적어도 개신교에 있어서 구원은 전적으로 신의 은혜에 달려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을 상상하기는 어렵다. 물론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인간의 노력이 어떠한 역할을 차지하는지에 관한 신학적 논쟁은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져 왔다. 대표적으로 종교개혁 역시 구원 또는 회개와 인간의 지분 사이에 관한 갈등이 주요한 원인이 되었던 사건이다.<sup>4)</sup>

다음으로 공장은 어떠한가? 공장은 교회와는 정반대에 있는 성격의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교회가 은혜가 노동을 압도하는 여가 중심의 장소였다면 공장은 은혜가 도무지 발을 들여놓을 틈조차 없는 노동으로 가득찬 장소다. 공장 노동자에게 있어서 적어도 공장 안에서의 시간은 노동시간과 휴식시간으로 나뉜다. 그리고 근로시간은 그대로 급여로 환원된다. 노동을 얼마나 하는가에 따라 그에 따른 대가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sup>5)</sup> 이러한 구조의 공장 안에 은혜의 시간, 즉 고대적 의미의 여가의 시간이 포함된다는 것은 사용자의 입장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sup>6)</sup> 공장이야말로 현대적 의미의 여가, 즉 일이 없어 남는 시간으로서의 여가의 의미가 딱 들어맞는 장소이다.

교회에서는 은혜의 압도로 인하여 은혜와 인간의 노력 간의 다툼이 무의미해진다면, 공장에서는 노동의 압도로 인하여 은혜가 틈탈 여지가 없다. 따라서 적어도 고대적 의미의 여가의 측면에서 공장은 전적인 노동의 장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교의 성격을 살펴보자. 앞서 교회와 공장의 모

---

4) 잘 알려져 있듯이 종교개혁은 교황의 면죄부 판매에 루터가 반기를 들면서부터 촉발되었다.  
5) 이번 정부 들어 노동 정책의 주요한 사안 중의 하나는 주당 근로 허용시간 52시간 제한을 해제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내세우는 논리는 주 52시간으로 노동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노동자로 하여금 더 높은 임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6) 물론 휴가나 보너스 형태로 노동 현장에도 '여가류(餘暇類)'가 존재하기는 한다.

습을 설명하였는데 그러한 방식으로 학교를 설명한다면 어떻게 될까? 굳이 비교하자면, 학교는 교회와 더 닮았는가, 공장과 더 닮았는가. 얼핏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 학교의 모습에 은혜라는 것이 존재할 여지가 있는가 반문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도 그럴 것이, 학생들에게는, 특히 한국의 학생들에게는 더더욱, 학교란 과업 수행과 시험으로 거의 가득찬 공간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도 그러한 답을 가지고 있는 이에게 ‘그렇다면 학교와 공장이 다를 바 없다는 뜻이냐’라고 반문한다면 또한 그 질문에 쉽사리 그렇다고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아마도 ‘아무리 학교에 은혜가 들어올 자리가 없다면 치더라도 노동으로 가득찬 공장과 같다고 간주해야만 하는 것이냐’고 항변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학교에서 주로 우리의 ‘앎’을 다룬다고 생각할 때 학교에 고대인들이 생각했던 인텔렉투스<sup>7)</sup>와 같은 은혜의 활동이 지금처럼 부재한 것이 옳은지는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은 수업시간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한다. 과연 이 지식은 어떻게 습득되는가? 아마도 주로 사용되는 활동은 고대인들이 생각했던 “추론적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힘, 탐색하고 검사하는 힘, 추상하고 정의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힘”을 의미하는 라티오일 것이다(Pieper, 1952/2005: 12쪽).<sup>7)</sup> 하지만 만약에 고대인들이 가졌던 믿음과 마찬가지로, 라티오가 우리의 앎을 완성하

---

7) 안타까운 일이지만 현재 한국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라티오로서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소위 ‘주입식 교육’이라는 교육의 양태에서는 학생이 능동적으로 사고력을 발휘하는 과정보다는 교사 등의 권위자에 의해 정해진 지식을 암기 또는 습득하는 능력이 우선시되기 때문이다.

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사와 학생의 그 많은 노력들이 완전한 결실에는 다다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 질문은 다른 방식으로 기술 가능하다. 학교에서 여가를 가르쳐야 하는가? 다시 말해서, 학교에도 은혜의 자리가 보장되어야 하는가? 자신의 노력만으로 자신의 삶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겸손한 자세를 학생이 겸비할 필요가 있는가?

플라톤의 대화편 『변론』에는 소크라테스가 왜 자신이 그렇게 질문하는 삶을 살았는지 자신의 삶을 변호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어느 날 소크라테스의 친구가 신전에 갔다가 친구 소크라테스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인간이라는 신탁을 받게 된다. 곧장 소크라테스에게 달려간 친구는 그 신탁 내용을 그에게 알려준다. 신탁의 내용을 듣자마자 소크라테스는 그 신탁을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도 그럴 것이 주변에는 자신보다 지혜로운 인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뒤이어 그는 신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도대체 왜 신이 자신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전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 이후부터 자신보다 더 지혜로운 인간을 찾기 위한 질문의 여정을 시작하게 된다.

지혜롭다고 여겨지는 여러 스승들을 찾고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보니, 소크라테스가 가지고 있었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관해 완전한 답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소크라테스는 큰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은 정의가 무엇인가에 관한 답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지만 다른 위대한 스승이라 일컬어지는 인물들은 실제로는 그들이 답을 가지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제서야 소크라테스는 신이 자신에게 주신 신탁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 바로 자신이 가장 지혜로운 인간이었던 이유는 다른 누구보다 많은 지식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로부터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시민들을 지혜롭게 만들기 위해 질문하고 검사하는 삶을 자신의 소명으로 알고 쉬지 않았던 것이다.

태양에 가까워질수록 사물의 그림자는 길어진다. 태양을 진리로 비유할 때 인간이 진리에 다가갈수록 발생하는 일은 그림자가 길어짐, 즉 무지의 자각이 증대한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소크라테스는 동시대 인간 중 가장 진리에 다가간 인물이었다고, 다시 말해서 가장 자신의 무지를 잘 깨닫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신이 소크라테스를 가장 지혜로운 인간으로 인정한 까닭이었을 것이다.

비단 소크라테스의 이야기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추앙받는 인물들에게서도 유사한 이야기들이 발견된다. 카톨릭에서 성자 중의 성자로 추앙받는 성 프란체스코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일화가 전해진다. 어느 날 제자 중 하나가 프란체스코에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냐고 질문하자 프란체스코는 자신이 ‘죄인 중의 죄인’이며, 하루라도 신의 도움이 없다면 이러한 삶을 살 수 없는 나약한 존재라고 고백했다고 한다. 이는 기독교의 유럽 전파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인물인 성 바울에게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고백이다. 바울은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라고 고백하고 있다.

태양과 그림자의 비유를 이 곳에 다시 적용해 본다면, 성 프란체스코나 성 바울은 태양 즉, 신에 매우 가까이 다가갔던 인물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부족 또는 죄를 자각하고 자신의 삶의 완성에는 신의 은총이 반드시 필요함을 인지하였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지각하고 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신경 쓸 여유는 없었을 것이다. 다만 자신의 삶의 완성을 위한 노력에 경주하였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처럼 겸손한 삶의 자세는 중국의 명작인 삼국지의 제갈량에게서도 발견된다. 그는 “제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쓴다 해도 목숨은 하늘의 뜻에 달려 있으니 하늘의 명을 기다릴 뿐”이라는 의미로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라 하였다. 현재에도 마찬가지로 후대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삶의 태도를 인생의 철학으로 삼고 있다. 이 말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 역시 ‘인간의 노력을 다 한 후’이다. 노력 없이 요행만 바라는 삶의 자세가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다 하지만 그 결과는 자신의 손을 벗어나 있다는 겸손한 자세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세는 지식과 관련하여서도 발견된다. 비트겐슈타인(1971)은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다(189쪽). 그는 세상사에는 인간의 언어로 표현되지 않는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였고 그것을 인간의 언어

또는 지식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시도는 부질없는 시도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매우 흥미롭게도 이러한 태도는 최첨단의 과학 분야에서도 발견된다. “양자역학을 이해하는 사람은, 나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다.” 이는 20세기 천재 과학자로 꼽히는 리처드 파인먼이 양자역학에 대한 강의에서 한 말이다.<sup>8)</sup> 최근에도 노벨상을 배출하고 있는 최신의 과학기술 영역인 양자역학의 핵심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파인먼은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며, 양자역학은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감동의 영역이라고 말한다.

지금까지 제시된 예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동서양, 고급, 철학·종교·과학·정치 등의 영역을 막론하고 역사적으로 ‘인간 노력 또는 이해의 한계’를 가정하는 주장들은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학생들에게 이러한 자세, 즉 세상사가 또는 인간의 지식 획득이 자신의 노력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한 자세를 가르쳐야 하는가? 다시 말해서, 학교는 학생들에게 여가를 가르쳐야 하는가?

이제 다시 또 이 장의 첫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앞서 연구자는 학교를 교회, 공장과 비교하고자 하였다. 은혜로 가득 찬 교회와 그에 반해 노동으로 가득 찬 공장 가운데 학교와 더 유사한 기관은 무엇일까? 어떠한가? 지금까지의 설

---

8) 1964년 MIT 대학교 특강

명을 참고하면 처음에 들었던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는가? 만일 학생들에게 삶에 있어서 겸손한 자세를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감히 학교를 공장과 유사한 기관이라고, 다시 말해서 인간의 노력에 의해 그 모든 결과물이 도출되는 기관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물론 교회에서의 구원의 문제처럼 그 성패가 인간의 노력 여하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문제에까지 도달할 필요는 없겠지만, 적어도 인간의 노력이 모든 결과를 완성해내지는 못한다는 태도는 학습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학교는 위에 제시된 세 기관 가운데는 독특하게도 노동과 여가, 즉 노력과 은혜가 공존해야만 하는 기관인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사는 성직자나 근로 감독자에 비해 더 곤란한 처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성직자나 근로 감독자는 적어도 하나의 활동이 다른 활동에 의해 치명적인 침범을 받게 될 걱정을 심각하게 할 필요는 없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성직자가 성도들이 구원의 문제를 전적으로 인간의 노력에 있는 것으로 생각할까봐 걱정하거나, 근로 감독자가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제품 생산의 결과가 전적으로 은혜의 영역에 달려 있다고 생각할 것으로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적 활동을 포함하여 학생의 전반적인 성장을 그 주된 과업으로 하는 교사는 학생의 노력에 의한 지적인 성취를 고양시켜야 하는 동시에 그 노력이 지식의 완결을 이끌어내지는 못한다는 것을 일깨워줘야 하는 매우 역설적인 과업을 맞이하게 된다.

### Ⅲ 교육에의 적용 - 여가의 부재

플라톤의 대화편 『메논』에는 주 대화자로 소크라테스와 메논이 등장한다. ‘짧고, 잘생기고, 부유한’ 귀족 출신 청년으로 묘사되는 메논은 단도직입적으로 소크라테스에게 ‘덕은 가르쳐질 수 있는지’ 질문한다. 이에 대해 소크라테스는 자신은 덕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판국에 그것이 가르쳐질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더더욱 알 수 없다고 대답한다. 이를 농담으로 생각한 메논은 덕을 아는 여러 훌륭한 스승들을 만나본 적이 없냐고 반문한다. 이에 대해 소크라테스는 메논이 직접 자신에게 덕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요구한다. 이렇게 시작된 소크라테스와 메논의 대화는, 메논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메논은 소크라테스에게 인격모독성 발언을 늘어놓게 된다.

『당신은 지금 나에게 마술과 주문을 걸어서 당신 마음대로 주무르고 그 결과로 나는 지금 완전한 무기력 상태에 빠진 것 같습니다. 실례의 말인 줄 알지만, 당신은 그 외모로 보나 다른 면으로 보나 저 바다 속에 사는 전기가오리와 영낙없이 닮았습니다. 그 가오리란 놈은 자기에게 닿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마비시켜 버리고 마는데, 당신이 지금 나에게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 마음과 입은 지금 문자 그대로 얼어붙어 버려서 도대체 당신의 말에 대꾸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나는 덕에 관해서 수백 번도 더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대중 앞에서 그것을 주제로 연설도 꽤 잘해 온 사람이라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조차 말을 할 수가 없게 되었으니, 내가 보기에 소크라테스 당신은 아테네를 떠나 다른 곳에 가서는 살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당신이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면 당신은 틀림없이 마술사로 체포될 것입니다(80a).』

부자인데다가 젊고, 잘생기고 전도유망했던 귀족 청년은 자신은 당연히 ‘덕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당시 나름 유명한 선생이었던 소크라테스 앞에서 먼저 질문을 함으로써 자신의 지적 능력까지도 선보이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대화는 자신의 무지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매우 혼란스럽고도 기분 나쁜 ‘아포리아(aporía)’의 상태로 이끌어졌다. 아포리아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곤란한 상황을 의미한다.

그 이후에 이어지는 대화를 살펴보면 소크라테스는 아마도 메논을 매우 아끼고 있었던 것 같다. 메논의 저주스런 고백 이후에 뜻밖에도 소크라테스의 반응은 그를 학습의 길로 이끌고자 하는 것이다. 그의 노력이 쉽게 결실을 맺지는 못하였지만 이후의 대화를 통해서 소크라테스와 메논의 ‘덕 개념’에 관한 공동 탐구가 이어진다. 메논은 ‘메논의 파라독스’라고 알려져 있는 학습불가능성<sup>9)</sup>을 주장하면서 소크라테스의 탐구 제안을 뿌리치고자 한다. 이 파라독스를 휘파하기 위해 소크라테스가

---

9) 『그렇지만, 당신은 당신이 찾으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그것을 탐구하겠다고 말합니까? 도대체 당신이 모르고 있는 것을 당신의 탐구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바꾸어 말해서, 설사 당신이 찾은 경우에도 어떻게 당신은 지금 당신이 찾은 것이 당신이 모르고 있던 바로 그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까?(80d).』

가져온 것이 바로 영혼은 불멸하기 때문에 모든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교육을 통해서 달성되어야 할 과업은 영혼이 육신을 입으며 잊게 된 이러한 지식을 되살려내는 일이라는 바로, 회상설<sup>10)</sup>이다.

이를 통해서 교사로서의 소크라테스의 기법을 들여다볼 수 있는데, 소크라테스는 학습자로 하여금 자신의 무지를 자각하도록 만드는 것이 학습의 시발점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메논이 안다고 생각하고 있는 한 그에게 학습은 일어날 가능성이 없었다. 매우 많은 노력을 들여 그로 하여금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이 아닐지 모른다는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뜨린 이후에 학습의 길은 열리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자신이 다 알지 못한다는, 자신이 모르는 것이 있다는 겸손한 자세야말로 학습자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자세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존 듀이(John Dewey)의 이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듀이(Dewey, 1916/2007)는 ‘미성숙이 성숙의 전제조건’이라고 말한다(93-94쪽). 다시 말해서 성숙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야만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완성은 긍정적 의미가 아니라 삶의 종결을 의미한다. 부족함의 자각은 그것을 채우고자 하는 동력이 되며 이것이 인간의 발달을 이끌게 되는 것이다. 양자역학에 존재하는 미지의 세계의 존재 역시 과학자의 탐구 동인이 될 것이다. 더 이상 발견할 것이 없다면, 더 이상의 탐구는 불필요해 진다.

---

10) 소크라테스에 따르면 인간의 영혼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여러 번 다시 태어나며 그 반복되는 인생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학습하고 있다. 다만 새로운 육체를 입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그 기억을 잃게 되며, 따라서 학습의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영혼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기억들을 다시 떠올리는, 즉 회상하는 일인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서 소크라테스는 노예소년과 기하학적 지식에 관한 대화를 시작한다(84a-d).

이처럼 채워지지 않는 영역의 존재는 인간 성장의 전제조건이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미지의 긍정적 의미’를 되새기도록 하는 것은 중요할 것이다. 인간의 탐구가 인간의 노력만으로 완성되지 않음을, 인간의 삶이 인간의 노력만으로 완성되지 않음을 주지하는 것은 계속적 성장의 동력이 된다.

현재 우리 학교의 모습은 어떠한가. 대학입시를 위해 어쩔수 없이 줄세우기 방식의 평가를 기반으로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학교에서 은혜가 비집고 들어올 자리는 없어 보인다. 학생들은 경쟁체제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려 할 뿐이다. 학생들은 노력에 파묻혀 노력 속에서 길을 잃게 된다. 이러한 현실에서 ‘무지’ 또는 ‘미성숙’은 학습의 시발점으로 교실 안에서 환영받기 보다는 당장 교정이 가해져야만 하는 학습의 장애물로 여겨질 뿐이다.

연구자가 강의 시간에 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 중 한 가지는 ‘질문 있으면 하세요’이다. 하지만 학생들은 질문하기를 매우 어려워한다. 왜 우리 학생들에게 ‘질문하기’가 어려운 과업이 된 것일까? 아이들이 웅알이 단계를 거쳐 인간다운 언어 사용을 막 시작할 때에 입에 달고 사는 말은 ‘이거 뭐야?, 저거 뭐야?’ 등의 질문들이다. 연구자도 돌이켜보면 그 당시 아이들은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입을 틀어 막고 싶을 생각이 들 정도로 위 질문을 많이 한다. 조금만 그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러한 현상은 너무나 당연할지 모른다. 엄마 뱃속에서 이 세상에 나와 그들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그들의 호기심과 탐구심을 자극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않겠는가.

하지만 아이들의 이러한 탐구정신은 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제약을 받기 시작한다. 기본적으로 우리 학교의 교실은 질문이 환영받는 곳이 아니다. 교사에게는 매 시간, 매 주, 매 월, 매 학기, 매 학년 단위로 가르쳐야 할 ‘진도’라는 것이 정해져 있다. 물론 최근에는, 특히 초등교육의 경우 교사들에게 재량이 어느 정도 주어지기는 하지만, 그 학생이 다음 해에 학업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을 가정했을 때, 많은 내용을 누락시킨 채 진급시킨다는 것은 여러모로 불가능한 현실일 것이다.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수업 시간은 ‘정해진 진도’라는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다시 말해서 학생들의 호기심에 기반한 질문이 비집고 들어갈 만한 여백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탐구심과 호기심을 본능적으로 탑재하고 태어났던 아이들이 초, 중, 고등학교 교육을 거치며 질문하는 방법을 잊어 버리게 되는 것이다.

사실 질문이란, 지금의 논의와 연결지어 보면, 무지에 대한 자각 또는 미성숙한 측면의 발견으로부터 시작된다. 물론 대화편 『메논』에 묘사되어 있는 메논과 소크라테스의 대화가 메논의 질문으로 시작되기는 하지만 대화편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살펴볼 때 그의 질문은 자신이 정말 몰라서 소크라테스로부터 배우기 위해 던졌던 질문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간파한 소크라테스는 메논으로 하여금 그가 안다고 가정하고 있는 ‘덕에 관한 지식’이 사상누각임을 주지시키며 진정한 학습의 장으로 끌어가는 것이다.

이처럼 질문은 학생의 성장을 위해 학습 현장에서 반드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다. 하지만 위에 설명한 바와 같

이 진도로 가득차 있는 교실에서는 진도를 잘 따라가기 위한 학생의 노력만 칭송되거나 책망받을 뿐 학습의 출발점으로서의 질문은 환영받지 못한다. 이러한 교육의 결과가 바로 질문하는 방법을 잃은 성인들인 것이다.

플라톤과 듀이의 이론에서 보듯이 무지 또는 미성숙의 자각에 기반한 질문은 학습을, 그리고 성장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된다. 이러한 순환 과정의 부재는 성장과 공부의 괴리를 낳게 된다. 공부에 전력을 기울이지만 정작 그것이 지속적인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 꼴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 IV 교육에의 적용 - 여가의 부재

듀이(Dewey, 1897)는 그의 교육적 신념을 기술한 ‘나의 교육 신조’라는 에세이의 마지막 부분에서, “따라서 나는 교사는 언제나 참된 신의 예언자이자 진정한 신의 왕국으로의 안내자라고 믿는다”(95쪽)라고 쓰고 있다. 일전에 연구자는 이러한 듀이의 주장을 여가의 존재론적 의미와 관련지어 교사를 ‘참된 신의 예언자’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sup>11)</sup>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가란 다른 무엇을 위한 활동이 아니었으며,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니는 활동이었다. 피이퍼(Pieper, 1952/2005)가 설명하듯이, 고대인들은 여가를 통해서 인간 안

11) 여가의 존재론적 의미에 관한 논의는 권영민(2018a, 2018b) 참조.

에 들어있는 신의 고귀한 약속을 발견하였다(13쪽). 다시 말해서,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가란, 단순히 현대인들이 이해하듯이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시간이 아니라, 인간과 사물에 관한 본질적인 지식을 얻는 시간이었던 것이다(Pieper, 1952/2005, 21쪽).

고대적 의미의 여가와 학교를 연결짓게 되면, 여가의 장으로서의 학교는 전혀 다른 의미로 이해된다. 고대적 의미의 여가, 즉 인간에 관한 참된 이해를 위한 시간으로 여가를 해석한다면, 여가를 위한 장소로서의 학교란 학생으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참된 이해를 갖도록 하는 장소를 의미하게 된다. 이처럼 고대적 의미로 여가를 이해하게 되면, 학교와 여가가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 즉 학교에서 학생들이 더 이상 자신에 관한 참된 이해를 갖지 못한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다.

듀이 이론에 토대를 둔 자아형성 과정에 있어서 ‘질성적 사고’(qualitative thinking)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질성적 사고란 인간이 어떠한 사태를 대면하였을 때 그 사태 전반에 산재되어 있는 질성을 즉각적으로 포착하는 것을 의미한다(Dewey, 1930, 249쪽).

질성적 사고는 시간적으로 보았을 때, 인지적 사고의 앞 뒤로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관계는 인간의 자아형성 과정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첫 번째 질성적 사고의 순간에 우리가 이제까지 형성한 자아는 현재 경험을 대면하게 되며, 우리는 자아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경험을 수용하게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첫 번째 질성적 사고의 단계는 우리로 하여금 자아의

재창조 과정에 착수하도록 해 준다. 두 번째 질성적 사고의 순간에 우리의 현재 자아는 미래의 이상적 자아를 대면하게 된다. 우리는 이 순간 현재 경험이 이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그러므로 두 번째 질성적 사고는 우리의 자아가 연속성을 가지고 형성되도록 해준다. 이처럼 질성적 사고는 인간의 자아형성 과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계속적인 질성적 사고의 순간이 없이는 자아형성 과정은 불가능하다(권영민, 2018, 43쪽).

그 원리에 있어서,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적성을 발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개인의 내부로부터 흘러나오는 초보적인 형태의 에너지는 교사에 의하여 포착되고 지도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교사의 이러한 역할은 부모에 의하여 완전히 대체될 수 없다. 데이빗 헨슨(David Hansen, 2001)이 주장하듯이,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능력과 잠재력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야말로 교사들의 최고의 소명이며, 이러한 과업은 교사 공동체의 노력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다(9쪽).

어원상으로 예언자는 신의 대변인을 뜻한다. 다시 말해서, 예언자는 신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기독교 전통에 따르면, 신은 각 개인에게 고유한 소명을 부여하였으며, 이 땅에서 그 소명을 실현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 신의 뜻을 수행하는 것이다. 성경에는 주인으로부터 달란트(talents)를 사용하도록 부여받은 하인에 관한 비유가 나온다(마태복음 25:14-30).

학생들로 하여금 그들의 고유한 능력들을 발견하고 삶 속에서 실현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다. 교육을 통해서

교사는, 종교적인 용어를 사용하자면, 각 학생 안에 들어 있는 고유한 소명, 즉 신의 뜻을 학생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생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주어진 신의 선물을 수행하도록 도와주는 교사는, 듀이가 선언하는 바와 같이 신의 예언자라는 칭호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사의 직무는 성직자의 그것과 비교하더라도 조금도 덜 성스러운 것이 아니다. 오직 교사의 헌신적인 열정과 애정만이 학생으로 하여금 신의 뜻에 걸맞은 삶을 살도록 해 주는 것이다.

김안중(1994)은 여가가 교사의 미덕(美德)이라고 주장한다. 이 때의 미덕은 그에 따르면, ‘유용성으로서가 아니라 덕으로서의 좋음’을 의미한다고 그는 말한다(3쪽). 다시 말해서 그는 교사가 그 자체로서, 즉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이나 선, 또는 ‘좋음’이 여가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연구자는 이 교사의 ‘좋음’이 개인적 차원의 선을 넘어 사회적 선의 역할까지도 수행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앞서 연구자는 교회, 학교, 공장을 비교한 바 있다. 설명된 바와 같이 교회와 공장은 여가 또는 노동이 다른 상대를 압도하는 비교적 둘 간의 경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적은 기관이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의 유지가 그 두 기관의 존재의미를 약화시킨다든가, 사회적으로 마땅히 수행해야 할 역할을 수행하지 못해 지탄의 대상이 된다는가 하는 상황으로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학교는, 비록 그 현실이 마치 노동이 여가를 압도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처럼 인식되기는 하지만, 그러한 상황이 과연 수수방관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인가는 재고해 보아야만 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삶과 앎에 있어서 인간의 겸손한 태도는 인간을 더욱 높은 경지로 이끄는 지혜임에 틀림 없다. 이러한 지혜가 소크라테스를, 성 프란체스코를, 바울을, 제갈랑을, 그리고 리차드 파인만을 위대한 인간으로 만들어 주었다. 이러한 겸손한 태도는 어디서 배울 수 있는가? 물론 가정에서도 부모의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겸양의 태도를 갖추는 것이 일부는 가능할지 모른다. 하지만, 인간의 앎의 전수를 그 기관의 존재 목적으로 삼는 학교야말로 이러한 지혜, 즉 인간의 삶 또는 앎이 인간의 노력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자세를 우리의 후세대에게 심어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아니 유일한 기관일 것이다.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학교는 여가와 노동의 전선(戰線)이 펼쳐져 있는 곳이라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교사는 그 최전선(front-line)에서 여가를 수호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 사회적 계급이다. 교사는 이러한 측면에서, 연구자가 보기에 여가의 수호자이다. 교사가 이러한 자신의 과업을 깨닫지 못한다면 인류는, 특히나 노동만능주의가 더욱 세를 불리고 있는 이러한 현실에서 노동에 굴복하여 도무지 여가가 우리 삶에 들어오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교사는 신의 참된 예언자로서 학생 안에 들어 있는 가능성으로서의 신의 소중한 선물을 발견해 주고 지도해 주는 매우 중요한 존재론적인 과업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학생으로 하여금 인간의 삶 또는 앎이라는 것은 그들의 노력만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소중한 진리를 겸손하게 지니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어야만 하는 인식론적인 과업 역시 지니고 있는 것이다. 교

사는 학생의 삶이 노동에 매몰되는 것을 막아주는 여가의 선봉장이 되어야만 한다.

## V 결론

지금까지 설명한 바와 같이 고대적 여가 개념은 현대적 여가 개념과 그 사회적 중요성과 개인적 중요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고대인들은 여가를 삶의 중심에 놓았으며 여가를 통해서 참된 인간성을 발견하였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대의 학교는 더 이상 여가를 위한 장소가 아니며, 자연스럽게 학교(school)와 그 어원인 여가(schole) 사이의 관련은 점점 퇴색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고대적인 여가의 의미에 대한 탐구는 학교의 본래적인 기능에 대한 성찰을 가능하게 해 주며, 더 나아가 여가의 장으로서의 학교의 의미를 환기해 준다.

현대적 의미의 여가 개념으로 여가의 장으로서의 학교를 해석한다면 학교는 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를 경감시켜주는 장소가 되며, 이러한 해석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는 현대인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고대적 의미의 여가와 학교를 연결시키면, 학교는 참된 자아를 추구하기 위한 장소가 된다. 시험과 과제가 중심이 된 현대 학교는 학생들로 하여금 참된 자아를 추구할 시간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만약 학교와 참된 자아 추구 활동이 논리적 관련을 맺고 있다면, 다시 말해서, 학교 이외의 사회 공간에서 학생의 참된 자아 추구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지 않다면 우리는 반드시 현대의 학교를

여가의 장소, 즉 학생의 참된 자아추구활동이 발생하는 장소로 만들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여가의 존재론적 해석을 넘어, 인식론적으로도 학교는 여가의 장이 되어야만 한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교사를 통해 여가적 삶의 태도, 즉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자신의 삶 또는 삶이 완성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을 배워야만 한다. 교사와 학생의 관계는 설계자와 건물의 관계가 아니다. 다시 말해서 교사의 계획에 따라 학생의 성장이 일어나는 관계가 아니라는 말이다. 오히려 교사는, 학생이라는 건물의 벽돌이 되는 존재이다. 교사의 삶의 태도, 그리고 지식에 대한 태도는 학생의 자아의 일부를 이루게 된다. 교사는 그 자신의 삶을 통해 여가를 실천해야 하고 그 겸손한 여가적 태도가 학생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교사는 그 자신이 진리 앞에 겸손한 자세를 보임으로써 학생들에게 입을 닫을 수 있는, 노력을 중단할 수 있는, 침잠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 침잠의 결과가 의미 있는 성과로 도출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어야만 한다. 교사가 이러한 자신의 과업을 깨닫지 못한다면 조금 과장하여 표현한다면 인류의 미래에 큰 재난이 닥치게 될 것이다.

- 논문 투고 일: 2023.01.26
- 심사 완료 일: 2023.01.30
- 게재 확정 일: 2023.01.30

## 참고문헌

네이버 국어사전.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권영민(2018a). “교사는 왜 참된 신의 예언자인가”, 『교육철학』, 66권, 1-24.

권영민(2018b). “인간의 자아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교육학 연구』, 56권 1호, 25-45.

김안중(1994). “교사의 미덕으로서의 여가”, 『교육이론』 7·8권 1호, 45-71.

Dewey, J. (1916). *Democracy and Education*. 이홍우 (역)(2007). 민주주의와 교육. 교육과학사.

Dewey, J. and J. A. Boydston. *The Early Works, 1882-1898. Volume 5: 1897. ‘My Pedagogic Creed’*, Carbondale: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2008.

Dewey, J. and J. A. Boydston. *The Later Works, 1925-1953. Volume 5: 1930. ‘Qualitative Thought’*, Carbondale: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2008.

Hansen, David T.(2001). *Exploring the Moral Heart of Teaching: Toward a Teacher’s Creed*.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Pieper, Josef(1952). *Leisure: The Basis of Culture*. Trans. Alexander Dru. Ontario: A Mentor Book. 이홍우, 이미중 역

- (2005). 『여가: 자유와 문화와 교육의 기초』. 성경재.
- Plato. (B. C. 400?). Apology. 김안중·박주병 역(2015). 인류의 대화에서 교육의 목소리 中 소크라테스의 변론. 강현출판사.
- Plato. (B. C. 400?). Meno. 김안중 역. 미간행 원고.
- Wittgenstein, L.(1971). Tractatus Logico-Philosophicus. Trans. C. K. Ogden.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Ltd.

A dark grey, irregularly shaped graphic resembling a brain or a cloud, containing the word "Abstract" in white text.

## Abstract

### **Why teachers are the guardians of leisure?**

**Kwon, Yeongmin**

Dept. of Education  
KNOU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clarify the epistemological meaning of the ancient concept of leisure and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leisure and true knowledge. After the scientific revolution, modern people tend to regard even knowledge as part of labor, but ancient people thought that true knowledge could not be obtained only through their own efforts. For the ancients, the time for true knowledge, the time to fill the limits or voids of their efforts, was leisure. The ancients recognized the limits of human effort through leisure and came to have a humble attitude.

When comparing churches, schools, and factories in term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leisure (grace) and work, teachers are in a very difficult position compared to clergy and labor inspectors. For a church or a factory, it is not a problem for grace or work to overwhelm other activities, but for a school, when work overwhelms leisure, it loses its social function.

In modern education, where the relationship between school and

its etymology, leisure, is gradually fading, the search for the ancient meaning of leisure will enable reflection on the original function of school, and further it will evoke the meaning of teachers as guardians of leisure.

| **Key Words** | work, grace, teacher, guardian, true knowledge